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2025년 CCD Summer Camp

본당의 아이들을 위한 CCD SUMMER CAMP가 지난 8월 16일(토) 160 여명의 참가학생들 및 봉사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Step by step into Hope (하느님께 한걸음씩)’을 주제로 한 올해 캠프는 하상관, 친교실 그리고 야외 나눔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봉사자들이 수개월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CCD 전학년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가지 실내 게임을 조원들과 함께하고 움직이며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시간을 보냈고, CYO 선배들이 함께 해 주는 울동찬양을 따라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PTO 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점心和 간식, 회장단이 마련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감사와 나눔을 배웠고 나눔터에서 물놀이와 관련된 게임을 하며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맑은 날씨를 만끽하며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의 캠프는 마지막 순서로 모든 학생과 봉사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모두가 하느님께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뜻깊은 하루를 감사드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www.stpaulchung.org/>
성 정 바오로 성당 홈페이지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정원제가 아니라 점수제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생기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자리’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도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좋은 자리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이 열심히 노력해봐야 어차피 이르지 못할 목표라면, 괜한 헛고생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쉽고 편한 삶을 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 ‘숫자’를 묻는 말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방법’으로 답하십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따져가며 이리저리 저울질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다면 하느님 말씀과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여 그분 뜻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정원제가 아니라 점수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미달될 일도,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가 요행으로 들어갈 일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무한경쟁’ 속으로 내모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부족한 세상에서는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자 뺏기 게임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느님 나라에는 좋은 자리가 충분하기에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여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자격요건입니다. 그 변화란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에, 뼈를 깎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과 집착, 고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는 큰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는 말에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맺은 얕은 ‘친분’을 내세우며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미사에도 열심히 나갔으니, 하느님 말씀도 많이 듣고 성체도 여러 번 받아 모셨으니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이랑 친하다고 해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건 비난받아야 할 부정이고 바로잡아야 할 불의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특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느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느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먼 훗날 알게 될 좋은 자리를 미리 보장받는 게 아니라, 힘들고 험난한 세상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나의 미래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목3동)

[금주의 전례상식]

- 성당에서의 기본예절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반드시 성당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십자 성호를 그은 후,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여러 차례 성당을 드나들 경우 더라도 반드시 성수는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찍어야 합니다. 성당에서 나갈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
- 성당 안에서 이동하다가 제대와 성체를 모셔둔 감실을 지나 칠 때 제대에서의 거리와 상관 없이 제대 중앙에 서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감실은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감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성당 안에서는 다른 교우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며 기도 또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1. 연중 21주간 모임 안내

- 8월 24일 (일) : 루카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하상문화원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 8월 26일 (화) : 은혜의 밤 (저녁 7시 30분)
- 8월 27일 (수) : 은혜의 밤 (저녁 7시)

2. 연중 22주간 모임 안내

- 8월 31일 (일) : 고국 성지 순례 모임 (오전 11시 30분, A-3,4)
- 9월 2일 (화) : 아버지 성서 봉사자 월례 모임 (저녁 8시)
- 9월 4일 (목) :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9월 5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50분)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9월 6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오전 10시 30분)

3. 9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9월 4일 (목) : 저녁 7시 30분 떼제 미사, 성시간
- 9월 5일 (금) : 저녁 6시 50분 십자가의 길, 7시 30분 미사
- 9월 6일 (토) : 오전 9시 묵주 기도와 묵상, 고해성사,
10시 30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4. 9월 9일 (화)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 9월 9일 (화) 은 연방 하원의원 보궐 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날 모든 모임은 하상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CCD/CYO 주일학교 등록

- 2025-2026 주일학교 등록을 시작합니다.
- 등록기간 : 9월 14일 (일) 까지
(9월 14일 이후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비 : 학생 1 명당 \$100
- 등록 장소 : 주일 2시 미사후 하상관 교무실
- 8월 3일부터 학부모님들께 구글폼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며, QR code가 포함된 안내 표지판도 하상관 근처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 주일학교 활동 (복사, 오케스트라, 성가대) 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주일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 :
CCD (유치부-8학년)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CYO (9학년-12학년) 구아름 데레사 교감 703-599-8869

6. 아버지 성서 모임 가을 학기 모집

- 신청 : 8월 24일 (일) 까지
- 과목 : 요한 복음, 사도행전, 이사야
- 문의 : 오재노 로사 703-772-7275
- 신청 링크 : QR Code



7. 은혜의 밤 (성령 기도회 주최)

- 일시 : 8월 26일 (화) 7시 30분 미사 후, 8월 27일 (수) 7시
- 주제 :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서 7:30)
- 강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
- 성당 게시판의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고국 성지 순례 재모임 안내

- 일시 : 8월 31일 (일) 오전 11시 30분 (A-3,4)
- 문의 : 강세원 바오로 준비 위원장 703-489-3938

9. 하상 성인 학교 가을 학기 안내

- 일정 : 9월 9일(화) -12월 5일(금)
- 등록 : 8월 24일, 31일, 9월 7일
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접수
- 과목 : 생활영어, 서양화, 민화, 수지요법, 성악교실, 키보드 색소폰, 크로마하프, 기타, 장구, 라인댄스
핸드폰, 컴퓨터
- 등록금 : \$60
- 세부사항은 후보대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올리안나 교장 (703)217-2775

10.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당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나보세요.
- 본당 주보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성당에 들어서면 가끔 향내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사때 향을 피우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성당에서는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성탄이나 부활과 같은 대축일의 장엄미사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사 주례자가 향을 쓸지 결정하지만 관습적으로는 대축일미사, 서품미사와 같은 특별한 미사, 장례 미사 등에서 사용합니다.
- 성경에서도 중요한 기도를 바칠때 향을 피우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는데, 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탈출기 30장 7절과 루카복음 1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희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 (시편 141,2)
- 구약성경에서 분향은 제물을 바칠때 또는 아침, 저녁 예물을 드릴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 향을 피우는 화로인 향로는 기다란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사제나 부제는 향이 퍼질수 있도록 향로의 사슬을 앞뒤 또는 옆으로 흔들니다. 그러면 향로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냄새가 성당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장례미사에서는 관에다 분향하여 고인의 영혼이 하느님 품에 안기기를 기원합니다.
- [알아두시다] 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바친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성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예전에는 주로 성체를 혀로 받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옆에 있던 복사들은 혹시라도 성체가 바닥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 영성체하는 사람의 턱 밑에 긴 손잡이가 달린 성체반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위생을 고려하여 영성체 방식이 바뀌었고 손으로 성체를 받아서 각자가 직접 자기 입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성체하는 이가 손을 쓸수 없거나 굳이 혀를 내밀어 입으로 받아 모시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제나 성체분배자는 신자들의 손에 성체를 놓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제가 떨어진 성체를 집어서 영하면 됩니다.** 혹시 사제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성체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사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체가 훼손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드물게 미사중에 포도주를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성혈이 떨어진 자리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성작 수건은 말린뒤 세탁을 하는데, 이는 바로 세탁을 하면 성혈이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8월 17일 (연중 제 20주일)

봉헌금	\$7,967.00
성모 승천 대축일 헌금	\$5,150.00
교무금	\$9,070.00
교무금 (신용카드)	\$6,850.00
감사 헌금	\$100.00
2차 헌금	\$4,855.00
온라인 봉헌	\$1,820.00
합계	\$35,812.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8월 29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8월 31일(일) 오전 6시 - 7시

1. 가톨릭 소식
2. 주일강론
3. 가톨릭 영상교리 : 견진성사
4. 응답하라 부르심에 : 명문대 출신 작가 성가 가수가 되기까지

교중미사 예물봉헌

8/24 이번주	프린스 윌리엄스
8/31 다음주	우드브릿지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